

19대 국회 대단원... 80여건 처리

새누리 말의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19대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

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지 않자 의원 퇴장하며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표포 속에 유일한 반대표 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

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의 일이었다.

여야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

할지, 통일부에 설치할지 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기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정환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이성주 기자

전주 등 3곳 과열지역 지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선거구를 제2차 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돈 선거, 비합법적 선거운동,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법외행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할 예정이다.

과열지역의 사이버 공간 선거법외 단속도 나선다.

도선관위는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적발시 이를 신속 삭제키로 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5~7일 총선 추가공모

새누리당은 5~7일까지 3일동안 국회의원 선거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전북지역은 선거구변경, 경계변경 등으로 인해 전주시,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6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1차 미신청 선거구는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 등 3곳이다.

/신광영 기자

도내 일부 당원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임정엽, 국민의당 입당 반대 '시험대'

임 후보측 "불허설 사실무근 허위사실에 대해 응징할 것" 정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당 임정엽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무진장)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당 전북지역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입당 허용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장 후보 공천에서 중앙당 반대에 좌절된 적도 있다.

당시 임 후보는 계파정치, 공천정치, 탈실공천 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임 후보로서 이번에도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공천 부적격자'라는 낙인과 함께 앞으로 소속 정당인으로서 출마가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는 셈.

이에 임 후보측이 이번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3일 도내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임정엽 국민의당 입당 불허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 후보측은 '임 예비후보의 국민의당 입당이 불허했다는 괴소문을 악의적, 조작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완벽한 사실무근이고 허위사실 유포와 해킹 등 얼굴을 가린채 이뤄지는 비열한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받아들인 입당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 세력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보고 이에 밀려들지 않겠다는 기류다.

임 후보는 3일 도의회에서 가진 출마 선언에서도 입당과 관련된 소문에 적극 나섰다.

임 후보는 "무소속이나 입당이나를 놓

고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꿈꾸면 그저 꿈에 그치지 않지 않게끔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1988년 제13대 이후 전북은 일당독주가 지속됐다.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고 더민주당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세습하고 공유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되면서 폐쇄와 비효율, 오만이 지배했다"면서 "입당을 통해 무기력한 전북정치의 존재감을 찾고 일당독주 폐해를 극복, 호남 전북정치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도내 정가는 국민의당이 이번 입당 반대 움직임에 어려운 숙제를 꺼내게 됐다고 내다봤다.

한 정가 관계자는 "입당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내일 전주에서 '더불어콘서트 시즌2' 더더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5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산성군회관에서 '더불어콘서트 시즌2 더더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된 비상대책위원, 손재원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던 정성태·진선미 국회의원, 전주출신 진성준 국회의원과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길 박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또 진주 김운덕(진주 갑), 이상직(진주 을), 김성주(진주 병) 국회의원과 박종덕, 최인규, 최재태(진주 을) 성은수(진주 병) 예비후보자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때론(집단 노래), 관객과의 대화, 초대손님 강연, '더더더' 로고송 배우기 등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시간들과 소통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했던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국민의 마음속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정책브리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크고 작은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문화관광형 시장·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사진)은 3일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매일·서동시장이 중소기업장이 선정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으로 하늬회 회원중간 있으며 익산의 모든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을 검색, 대출·반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6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왕원 기자



도내 전현직 지방의원, 김광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33명은 3일 "이번 총선에 국민의당 전주갑 지역으로 출마한 김광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치를 현장에서 경험한 우리는 지방정치의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왜곡된 지방자치 시스템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쥔 정치인들은 지역을 불모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지방정치를 철저히 농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김광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김광수 후보는 두 번의 시의원과 두 번의 도의원을 통해 지방의 현실을 명쾌하게 꿰뚫어 보고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누구보다 깊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김윤덕 예비후보, 오늘 중앙당 공천 면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 예비후보·사진)은 "당내 경선이 없는 단수후보이지만, 4일 중앙당에서 공천면접을 치를 예정"이라며 "이번 면접과정에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당당한 전북정치를 펼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심위원들에게 "지난 16년간 전주에는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재선의원이 없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활동을 제대로 평가받고 든든한 전주의 힘, 당당한 전북정치의 자선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7개 지역구의 복수 공천신청자 18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전주를 금융 허브로"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사진)는 3일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전주를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총선 공약개발 현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금분부는 범죄화를 통해 전주이점이 (법적으로) 확장된 만큼 전주로 이전하는 데에 변화가 없다"며 "정치공제보다는 기금분부 전복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확충, 정주요건 개선 등 이주 환경을 갖추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기금 500조 중 1조 원을 전북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전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성주 예비후보, 송천로 인도설치 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 예비후보·사진)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3일 오후 송천로 파출소 앞에서 덕진구청과 주민, 시도의원이 함께하는 송천로 인도설치 현장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골목길 인도설치가 되면 시민들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된다"며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인도설치를 위한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덕진구내 송천로, 송천길, 편운로 등 3개 지역(길이 2283m, 폭 1.5~2m, 면적 0.60㎡)에 인도설치를 추진해왔다.

/신광영 기자



김호서 예비후보 "야권통합논의 진정성 의심"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사진)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통합 논의의 진정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총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통합 논의에 필요한 불리성 시간이 가능한지의 구상이 든다"며 "김 대표의 통합 제안이 순수한 야권 통합의도가 아니라, 국민의당 흔들기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퇴색시켜 총선 정국에서 더민주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 대신 '구태정치', '선거민을 위한 아합' 등으로 비춰져 공멸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더민주를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더민주가 진정으로 4.13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바란다면, 현실성 없는 당내 통합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의 모습으로 더민주를 폐당하고 백의충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이석권 예비후보 "튼튼한 익산 등 실천"

무소속 이석권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이하 이 후보·사진)는 "노력하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이 갑이다" 모토를 가지고 출마의지를 펼쳤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나라살림' 기반에 충실하겠다"고 원칙을 외치면서 구체적인 ▲튼튼한 익산·부자 농촌 조성 ▲일하는 보람·공정한 노동환경 만들기 ▲구도심 소외상가·역사문화 창조벨트화 ▲민생안정 최우선과제·지랄 없는 나라 등 4개의 실천 사항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리삼성초졸이리동중졸,이리남성고졸,전북대 자원공학과졸 및 전북대 교육대학원 체육학석사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현 몽환마을 이장, 현 참사랑 태권도 교육관장, 현 익산제2회 그린리더 회장, 현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품새 상임심판, 현 한국검무연맹 해동경도 양지관장 등의 경력을 가진 본으로 지역정가에서 정평이 나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곽인희 예비후보 "새만금 우주 항공 메카로"

국민의당 곽인희 예비후보(김제·부안·사진)가 김제·부안의 100년 먹거리산업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새만금지역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3일 부안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밝혔다.

곽 후보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경남 사천공항공을 이용한 테스트베드가 발달하여 있고, 우주발사체 관련 테스트베드는 전남 고흥의 외사로도 우주센터가 유일하다"며 "경남 사천은 항공기 제작과 시험 등을 담당하고 새만금에는 소재와 부품 등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김제·부안의 100년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후보는 "지난 해 SOC사업 정부예산 증액이 대구·경북은 74.5% 늘고 전북은 6%에 그쳤다"며 "제 역할을 못하는 전북정치를 개혁하고 나아가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여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우주항공산업 유치와 육성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북의 탄소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기동 예비후보 "지방의원들 한 후보지지는 구태"

국민의당 이기동 예비후보(전주 갑·사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직 지방의원 33명의 한 후보지지는 구태정치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자 면접이 시작되고 정치신인 25% 가산점 부여 등 경선 방침이 확정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갑작스런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특정세력의 특징을 위한 정치적 의도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먼저 촉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김용임 도의원 예비후보, 무명한국인 선거운동

김용임 도의원 예비후보(익산 4·사진)가 3.1절을 맞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이색선거운동을 전개했다.

김 후보는 "16세의 가녀린 여학생으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유관순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추모의 열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여성의 품으로 갖은 교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전국적 민세운동의 시초를 밝힌 유관순처럼 여성성으로 소문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을 지키겠다"며 굳은 결의를 보이는 의미로 무명한국인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